

파워컨버터 출시

아그파의 오픈 워크플로우(Open Workflow)인 아포지(Apogee)는 파워컨버터가 워크플로우 통합 솔루션이 가능한 파워컨버터(Power Converter)를 첨가함으로써 한층 더 향상된 운용성과 통합성을 가지게 되었다.

파워컨버터를 사용하면 기존 아포지에서 지원하던 PS, PDF 및 TIFF 포맷 뿐 아니라 Packbit, CT/LW, Delta, Handshake 등의 다양한 파일 포맷을 곧바로 자동적으로 인식, 변환 후 입력할 수 있어 아그파의 아포지 워크플로우나 타사 워크플로우의 통합을 한층 손쉽게 이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입력 파일을 PS, PDF, TIFF 등 필요한 범용 포맷으로의 변환도 가능한데, 이는 전체 워크플로우에 대한 동일한 파일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교정 출력의 정확성 등과 같은 고객의 우려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준다. 범용 포맷으로의 변환 기능을 통해 대다수의 출력단말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하므로 출력장비의 원격지운용 또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사용자는 파워컨버터를 사용하여 기존에 보유한 워크플로우를 아그파 아포지와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장비 및 워크플로우 통합, 교정기 운용, 원격지 전송 및 출력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아그파코리아 ☎ 02-2262-4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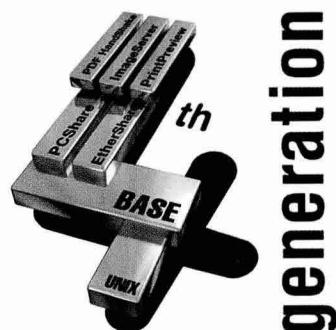
HELIOS 4세대 제품 발표

マイクロキュニ스(주)(대표 이병열)는 전자출판 네트워크 및 OPI 솔루션 HELLIOS의 제 4세대 제품을 발표, 공급에 나섰다.

서버와 고객의 네트워킹 환경을 제공하는 HELLIOS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전자출판 작업환경에서 매킨토시와 일반 PC의 구분없이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UNIX, LINUX 운영체제의 서버환경에

Mac OS X 서버까지 추가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설치와 사용자 환경, 관리자 기능 등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4세대 제품의 주요 특징은 서버 오류 보호 기능 강화로 더욱 안정된 서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한글 지원이 자유로운 Unicode를 지원하고 출력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HELLIOS 4세대 제품은 제품 구동을 위한 기반 역할을 담당하는 HELLIOS Base, 매킨토시 클라이언트를 위한 EtherShare 3.1, PC클라이언트용 PCShare 3.1, PDF 출력용의 PDFHand Shake 2.1, 최종 출력 전에 인쇄상태 미리보기가 가능한 PrintPreview 2.0, 출력시 고해상 원본 파일로 출력하도록 지원해주는 EtherShare의 업그레이드형인 Image Server 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 마이크로큐ニ스 ☎ 02-2275-6611



generation
4th

Six Degree V1.5 선보이

2002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컴텍스 쇼에서 크레오는 Six Degrees 1.5 버전을 선보였다. 이 버전은 이메일 메시지, 관련 파일, 업무 관계자들을 자동적으로 연결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메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작업 효율을 높이는 소프트웨어다.



Mark Jemonns 크레오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팀 이사는 "Six Degrees는 각 파일의 최신 버전에서부터 2주전의 이메일까지 중요사안에 대해 검색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Omnilux의 제품 매니저 Heidi Eldenburg는 "Six degrees는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새롭게 setting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파일을 찾게 해준다"며 참관소감을 밝혔다. 크레오는 이미지 캡쳐 시스템과 잉크젯 프린터, 써멀 방식의 필름 출력기, 워크 플로우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 및 디지털 인쇄, 맞춤형 디지털 인쇄기 전문 제조업체로 이번에 출시된 1.5시험 버전은 www.creo.com/sixdegree에서 다운받아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크레오한국지사 ☎ 02-2279-3415

All Pulp Art Board MGB 출시

무림제지는 지난 12월 초 고급 포장용지와 유아용 교재 및 일반 서적류 커버 등에 사용하는 All Pulp Art Board MGB를 출시했다. MGB는 판지와 아트지의 강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100% 표백펄프 제품이기에 기본적으로 판지 특유의 고강도를 자랑하면서도 아트지류의 인쇄적성을 더해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인쇄 후 가공시에는 Overcoating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잘게 부서지는 Orange Peel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쇄적성 못지 않게 후 가공 적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형광염료를 일체 첨가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MGB의 주요 평량은 300g/m²과 350g/m², 400g/m²이며, 200~400g/m²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매월 1,500톤 이상 판매로 고급 포장용기와 유아용 교재 등의 보드 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무림제지 ☎ 02-3485-1655

PHOTO CD 4종 발표

디지털 컨텐츠 전문 업체인 (주)엔파인 (www.iclickart.co.kr)에서 아이클릭아트 포토 CD 3차 시리즈 4종을 출시했다.

각 CD에는 small, medium, high 폴더가 있어 100개 씩 3가지 사이즈의 이미지가 있으며, 모두 별도의 사용료 없이 엔파인과의 계약을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4종의 제목은 City Views / Interior Decorations / Four Seasons / Patterns & Backgrounds 등이다. City Views는 2차에 출시된 제품과 같은 제목으로 세계 각국의 공원, 동상, 고전적, 현대적인 건물, 항구, 다리 등의 이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Interior Decorations은 화병, 테이블, 바구니, 찻잔, 접시 등 집안 장식에 필요한 소품을 모은 CD이다. Four Seasons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Patterns & Backgrounds는 사선, 점, 타일 무늬와 같은 패턴과 자연이 포커스 된 배경 이미지를 모아 두었다. 엔파인은 이번 3차 시리즈 발표로 총 13종의 CD를 갖추게 됐으며, 각 CD마다 100 종의 이미지가 들어 있어 모두 1,300개의 이미지를 갖추게 됐다.

문의 : 엔파인 ☎ 02-555-6580



Cutting Plotter 개발

리테크(대표 이경희)는 도안된 문자나 그림을 정밀하게 커팅해 주는 Cutting Plotter 'Lee Tech MA120'을 개발했다.

국산 기술로 개발된 이 초정밀 Cutting Plotter는 디지털 서브 모터로 작동하므로 최상의 초정밀 커팅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밀도는 최고 0.025mm에 이르며, 이로 인해 2mm의 미세한 글자도 정교하게 커팅할 수 있으며, 곡선은 더욱 부드럽게 하고 직선은 더욱 날렵하게 커팅해 준다. 또한 기존의 용지 걸림 레버가 수동이었던 것을 자동으로 개발해 편리성을 더욱 높인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시트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깔끔하고 예쁘고 커팅해 주는 이 Cutting Plotter는 최고 속도 1,020mm/s이며, 최대 시트 폭은 1,300mm(커팅 폭 1,200mm)이다.

문의 : 리테크 ☎ 02-454-0550

UV 순간경화방식 잉크젯 프린터 개발

UV 순간 경화방식 잉크젯 프린팅시스템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앞으로 실크스크린 및 실사출력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하이퍼닉스(대표 옥철식)는 최근 HYPERJET-UV시리즈라는 신개념 잉크젯 프린터를 개발, 보급에 나섰다.

하이퍼닉스의 HYPERJET-UV시리즈는 소재 및 시트·롤, 형상에 관계없이 프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이즈도 2,500mm 폭까지 프린팅이 가능하고 UV잉크를 사용해 건조가 빨라 생산성도 높다. 특히 CMYK 노즐 외에도 화이트 노즐을 2개 장착하고 있어 색 재현성이 좋고 작업성도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기술은 해외의 메이커에서도 채용치 못한 기술로 국제 특허를 취득할 예정이다. 프린터의 가격도 해외 경쟁사의 25~30%에 불과해 국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 개발한 제어시스템도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수출진흥에도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2002 한국사인·디자인전시회에서 외국 바이어들로부터의 상담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 확산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하이퍼닉스는 노즐과 잉크를 제외한 전 부분을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UV잉크도 국산화를 위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린팅시스템은 산업분야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여 원하는 회사에 인라인 장착을 위한 주문형 제작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하이퍼닉스 ☎ 02-6275-5744

